**마2239 Note**

**◆Cross check : 레1918, 요1512**

레1918. 너는 복수하지 말지며, 또한 네 백성의 자녀들을 거슬러 어떤 원한을 품지도(나트르:지키다,품다,원한을 품다,비축하다) 말지니라.

대신에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Ω요1512. 이것이 나의 계명이니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해온 것과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사5805. 그것이 내가 택했던 그러한 금식이냐? 사람이 자기 혼을 괴롭히는 날이냐? 그것이 갈대와 같이 자기 머리를 숙이는 것이며, 자기 밑에 거친 삼베(사크:망사,성긴 천,삼베,자루)와 재들을 펼치는 것이냐? 네가 그것을 금식이라고 부르려 하며, 여호와께 받아들여질 만한 날이라고 부르려 하느냐?

사5806. 이것이 내가 택했던 금식이 아니냐? 곧, 사악함의 차꼬들을 풀어주며, 무거운 짐들을 풀어주며, 또 압제 받는 자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가게 하며 또 너희가 낱낱의 멍에를 부수는 것이 아니냐?

사5807. 그것은 배고픈 자들에게 네 빵을 나누어 주며, 밖으로 버려진 가난한 자들을 네가 네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냐? 네가 헐벗은 자를 보고, 네가 그를 덮어주며, 또 네가 네 자신의 육신으로부터 네 자신을 숨기지 않는 것이 아니냐?

마2535. 이는 내가 굶주렸고, 너희가 내게 음식을 주었으며, 내가 목말랐고,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고, 너희가 나를 안으로 들였음이며,

마2536. 헐벗었고, 너희가 나를 옷 입혔으며, 내가 병에 걸렸고, 너희가 나를 찾아왔으며, 내가 옥에 있었고, 너희가 내게 왔음이라,

1요0315.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누구든지 살인자이니라. 그리고 어떤 살인자도 자기 안에 머무르는 영생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너희가 아느니라.

Ω1요0420. 만일 어떤 이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니라'고 말하고, 그의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장이라. 이는 그가 보았던 그의 형제을 사랑하지 않는 그가, 그가 보지 않았던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음이냐?

Ω1요0501.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느니라, 그리고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낱낱의 자는, 그분에게서 태어난 그를 또한 사랑하느니라.